

불교단체, '4대강 중단' 2차 정진

영담 스님에 "대화 응하라" 촉구

8월 20일부터 매주 금요일 오후 조계사에서 문수 스님 주모와 생명살림을 염원한 108배 정진과 서울광장서 종교인 4대강 반대 기도회가 봉행된다.

또, 4대강생명살림연대가 제안한 공개대담에 조건부 수용의사를 밝혔던 조계종 총무부장 영담 스님이 조건 없이 대화에 응하지 않을 시에는 불교단체들이 주최하는 강도 높은 퇴진 운동이 펼쳐진다.

4대강생명살림불교연대(이하 불교연대)는 7월 28일 서울 종로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 사무실에서 영담 스님과의 공개대담과 4대강 사업 반대 운동 방안 등을 주제로 회의 후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불교연대는 4대강 사업과 종단 쇠신을 별개로 분리해 각각 대응키로 결의했다.

이를 위해 28일 열릴 것으로 알려진 '영담 스님 공직사퇴를 위한 백일정진'을 '4대강사업 중단을 위한 문수 스님 소신공양 49제 2차 정진'으로 이름을 바꿔 8월 20일 입재키로 했다. 매주 진행돼 온 생명평화 대화마당도 2차 정진 입재 직후인 25일, 9월 8·28일 계속 이어진다. 또, 4대강중단연합회와 연대해 진행되는 4대강 반대 운동에는 대규모 단식 등 구체적인 계획이 다수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불교연대는 기자회견을 시작하면서 "수차례 총무원 총무부를 방문해

영담 스님과의 면담을 시도했지만 허사였다. 영담 스님이 언론과 광고를 통해 입장을 밝혔듯이 불교연대도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8월 3일 성명서를 내는 등 방법을 달리 하겠다"고 밝혔다.

불교연대가 영담 스님에게 조건 없이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 것은 26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교인도지원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발표한 스님의 조건부 공개대담 수용 입장에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조동섭 기자

"대담 원하면 불교단체 대표 나와라"

조건 없는 공개대담 참석을 촉구하는 불교연대의 주장에 대해 영담 스님은 전화통화에서 "조건이 맞춰져야 대화를 할 수 있다"며 불교연대의 제안을 거부했다.

이에 앞서 조계종 총무부장 영담 스님은 7월 26일 성명서에서 4대강 생명살림불교연대의 공개대담 요청에 "공개대담을 하려면 불교단체도 대표가 나와라"는 입장을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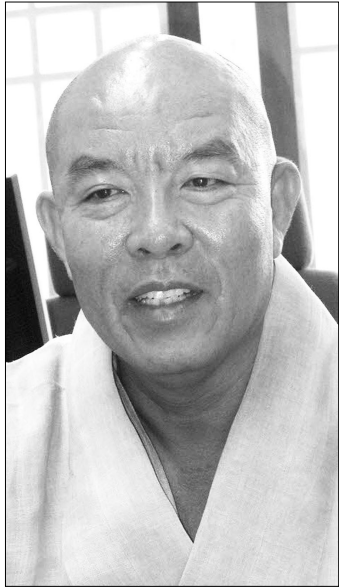
영담 스님은 성명서에서 "불교연대에는 조계종과 무관한 단체(스님 등)와 이교도들이 참여하고 있다"며 "엄연한 종단 내부의 문제인 조계종 총무원 총무부장 거취에 대해 알기 앞볼 자리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한 바 있다.

조동섭 기자

◆ 조계종 장학위원회 위원장 보광 스님

"종단이 필요한 분야 집중 육성"

"신라의 원효와 의상 대사, 중국의 현장 스님과 같은 인재양성에 힘쓰겠습니다. 종단이 필요로 하는 인재가 성장할 수 있는 풍토, 인재가 종단에 회합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학을 좇아 특정 학문에 편중된 경향이 많습니다. 계율학 등 사회관심은 적으나 종단이 필요로 하는 분야를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보광 스님은 "장학위원회의 활동이 성과를 거두려면 장학기금 모금과 선발방법, 종단의 인재 활용 계획 등 삼박자가 맞아야 한

다"고 말했다.

특히 스님은 "장학혜택을 받는 학인 스님 선발은 장학 지원을 받고 학업을 마친 후 종단에 얼마나 열정을 갖고 회합할 것인가를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학위원회의 활동은 해외유학 등에 대한 지원을 시작으로 국내에서 학업 중인 스님, 교직자 스님들의 연구비 지원 등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보광 스님은 "장학위원회는 불교학과 응용불교학 등 학문에 차별을 두지 않고 종단이 필요로 하는 학문이라면 전폭적인 지원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제33대 집행부가 '장학금 지급 및 관리에 관한 령'을 제정하는 등 인재발사에 공을 들이는 만큼 장학위원들은 장학기금이 소중한 삼보정재임을 명심하고 종단을 위해 헌신할 인재를 선발·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동섭 기자 cetana@buddhapia.com

"4대강 사업 강행 이유 있는가"

화쟁위원회, 낙동강·영산강 현장 방문

조계종 화쟁위원회(위원장 도법)가 갈등을 빚고 있는 4대강 사업에 대한 화쟁안 마련을 위해 낙동강 4대강 사업 현장을 방문했다.



7월 23일 낙동강 4대강 사업현장을 방문한 조계종 화쟁위원들이 구미보를 바라보는 모습. 사진제공 = 조계종 총무원

화쟁위원들은 7월 23일 경북 구미를 방문해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지역 시민단체 회원 면담을 비롯해 구미보 현장 답사를 실시했다.

이종찬 구미 풀뿌리 희망연대 공동대표 등 구미 지역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4대강 사업 목표가 불분명한데다 정부가 내세우는 일자리 창출, 환경개선 주장을 믿을 수 없다"며 정부에 강한 불신감을 드러냈다.

화쟁위원들은 정부 측 인사로부터 4대강 공사 현황을 들은 데 이어 공사 현장을 둘러본 뒤 궁금점을 질의했다.

도법 스님은 "국민을 분열로 몰아넣으면서까지 4대강 사업을 강행하는 이유가 있느냐"고 물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심명필 부부 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화쟁위원회에 정부 입장을 잘 설명했는지 묻는 등 화쟁위원회 활동에 각별한 관심을 보였다. 한편, 화쟁위원회는 8월 2일 나주 승촌보 등 영산강 4대강 공사현장을 방문했다. 조동섭 기자

만해축전 11~14일 인제서 열려

축전 기간 전후 22개 단체가 주관 학술·대동한마당

한국을 대표하는 문학의 제전이자 문화예술인들의 대동한마당으로 거듭나고 있는 만해축전이 8월 11~14일 백담사 만해마을에서 열린다.

올해로 14번째를 맞는 만해축전은 만해 한운운 스님(1879~1944)의 민족·자유사상과 불교적 평화실천과 문학정신을 기리기 위해 열리는 세계민족 문화·시대회다.

11일 만해시인학교 입학식을 시작으로 분향사의 막을 올리는 만해축전은 지역 주민들의 참여도를 높여 지역축제로서 자리매김할 계획이다.

만해축전 첫날인 11일에는 만해시인학교 입학식에 이어 제8회 유심작품상 시상식과 축제 전야제, 12일에는 만해축전 입재식 및 만해대상시상식이 열린다. 지역민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개막행사에 해당하는 '만해대상시상식'을 만해마을에서 인제군 '하늘내린센터'로

옮겨 개최하는 것이 특징이다. 축전 기간 전후로 한국시가학회, 한국시조학회, 민족문제연구소, 한국하이테크학회 등 총 22개 단체가 주관하는 학술 심포지엄이 펼쳐져 108편에 이르는 논문들이 발표되며 일부 심포지엄은 축전기간 이후에도 진행될 예정이다.

홍사성 축제 기획홍보위원장은 "시조문학의 경우 최근 4.5년 동안 민족문학의 중흥을 위해 집중적으로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며 "금년에도 7개의 시조 관련 세미나가 개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14회 만해대상 수상자로는 평화 부문에 이종건(72) 전 국제모타리클럽 회장, 문학부문에 소설가 존 램스던 솔(63) 국제펜클럽회장, 정진규(71) 현대시학주간, 학술부문에 김학성(65) 성균관대 교수와 존 던컨(65) 미국 UCLA 한국학연구소장이 각각 선정됐다. 올해부터 인권운동가뿐만 아니라 사회복지활동가까지 범위를 넓힌 실천부문에 사회복지법인 인덕원 이사장인 성운(59) 스님이 뽑혔다. (033)462-2304

노덕현 기자

날짜	행사명	주관	장소
8.6	21세기와 만해	만해학회	만선회 서울사무소
8.7	전국 계간 문예지 축제	열린시학	만해마을
8.7	시조의 문화콘텐츠 활성화방안	시조문학	홍사단 강당
8.11	만해시인학교 입학식	만해마을	만해학교
8.11	단시조 한글서예전	모임서학회	만해문화박물관 전시실
8.11	현대시조의 미학적 전망과 탐색	대구시조시인협회	실라별성
8.11	제8회 유심작품상 시상식	만해마을	수원원대강당
8.11	축전전야제	만해마을	수원원대강당
8.12	우리 현대시의 아포리아	현대시학	실라별성
8.12	현대시조와 메타포	경남시조시인협회	수원원대강당
8.12	제12회 전국고교생백일장	강원일보사	인제실내체육관
8.12	인제군게이트볼대회	인제군게이트볼연합회	인제읍 게이트볼구장
8.12	한국문학의 불교제 수용과 상상력	현대불교문인협회	수원원대강당
8.12	'말수없어요'의 창작 원리와 의미의 스펙트럼	시안	실라별성
8.12	북한주민의 생활변화와 남북소통의길	동북아 미시사회연구소	일석기념관
8.12	님의침묵 서예대전 시상식	강원도민일보사	하늘내린센터 전시실
8.12	전국고교생백일장 시상식	강원일보사	인제실내체육관
8.12	현대 시시의 새로운 방향	시와 세계	만해마을
8.12	만해축전 입재식 및 만해대상 시상식	만해사상실천연합회	하늘내린센터 대강당
8.12	7080음악회	인제군	하늘내린센터 대강당
8.13	아시아·유럽문학의 경계	창작21 작가회	만해마을
8.14	대동축구대회 개막식	인제군축구연합회	용대리 특공연대
8.15	환경과 문학	한국문인협회	문영유스호텔
8.15	대동축구대회 시상식	인제군축구연합회	용대리 특공연대
8.17	종교와 시민사회의 소통 가능성과 그 방법론 연구	종교자유정책연구원	만해NGO교육센터
8.27	문학·정치·윤리·종교	한국작가회의	한양대
9.10	상차 불교 배척할 것인가, 포용할 것인가	불교평론	불교역사문화기념관

성명서

공고

2010년 7월 21일 현대불교신문 대봉스님 공고에 대한 답변

본인은(사)한국불교 조계종 제6대 종정으로써 작금에 진행된 본 종단 탈취사건에 심히 유감을 표시하며 본인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1. 현재 자칭(사)한국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문경 백봉스님은 본종 승려가 아니므로 (사)한국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운운하는 것은 일고의 가치가 없다
2. 소위 2010년 1월 25일 작성했다는 본인의 사직서는 허위조작된 문서이며 본인은 사직서를 제출한바 없다. 따라서 이러한 허위문서를 작성하여 종도들을 속이고 기만하며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무리들은 가급적 빨리 조사하여 엄중 문책할 것이다.
3. (사)한국불교 조계종 총무원장은 자화스님 임을 이 자리를 빌어 천명하니 전 종도들은 흔들림 없이 총무원장과 일치단결하여 어려운 난국을 극복하고 본종단의 종풍과 정통성확립에만전을 기하며 수행 정진하는데 최선을 다하라

불기 2554년 7월 25일

문화관광부 등록 141호
(사) 한국불교 조계종 종 정 율 정

1. 사단법인에 대하여

한국불교단체 총연합회는 1994년 2월 3일자 문공부 법인설립허가 141호 단체로 이 단체를 구성하고 있는 불교단체 즉 회원종단은 당연히 사단법인체임. 따라서 본인이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는 한국불교단체 회원종단 한국불교 조계종은 문공부 등록 141호 사단법인체다. 따라서 대봉스님의 이의제기는 합당하지 않음.

2. 날짜가 맞지않는다는 건에 대하여

한국불교조계종 제6대종정 율정스님 에하계서는 2009년 8월 17일 (사) 한국불교단체 총연합회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비로소 한국불교조계종은 사단법인 자격을 취득 하게 됨. 그 후 종단 탈취사건에 대노하신 종정에하RP서는 종단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사)한국불교조계종 대표자를 2010년 4월 10일 전원 만장일치로 본인(자화스님)으로 바꿈. 그 후 본인은 근거서류를 준비하여 2010년 4월 15일자로 세무서에 신고하여 고유번호증을 획득하였음. 대봉스님은 앞으로 문제제기 하시려면 확실히 알아본 후 하시기 바람.

3. 원로위원 서명날인 건에 대해

지암스님께서는 종단을 안정시키려면 종정르스님 사임권고를 하여야 한다. 길래 그 말만 믿고 2010년 1월 19일 당시 모인 원로의원스님들께서 종단을 안정시켜야 한다는 애초차원에서 서명날인 하였으나 그 후 그것을 이용하여 2010년 1월 25일 종정 율정르스님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처럼 사직서를 (가짜로 생각함, 누구소행인지 꼭 밝혀야 하는 부분) 작성하여 타종단스님인 대봉스님에게 총무원장자리를 넘김. 이러한 일련의 사건에 대해 본인도 속았고 종도들도 다 속았음.

4. 끝으로

대봉스님RP서는 당신이 속해있는 단체가 사단법인체가 맞다면 하루속히 법인설립 허가증 및 근거서류를 공개해 주시기 바라며 법적조치 및 형사처벌 운운하는 말씀은 행동으로 하시던지 아닌 본인의 명예와 관계되는 일이라 삼가주시고 종도스님들께서는 종정 율정르스님을 믿고 잠시 종단을 떠났더라도 속히 돌아와주셔서 화합하고 정진하는 종단을 만들어 가는데 일조해 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본종단과 유사한 단체에 현혹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불기 2554년 7월 25일

문화관광부 등록 141호
(사)한국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자 화